

SK에너지, 윤활유사업 분리 추진

글로벌 경쟁력 확충에 유연성 확보 ... 원료 윤활기유 사업도

SK에너지가 지크(ZIC) 브랜드로 유명한 윤활유 사업의 분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에너지 관계자는 7월2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사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윤활유 사업을 따로 떼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분사 후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 등이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SK에너지의 윤활유 사업은 완성제품인 지크 생산과 윤활유 원료인 윤활기유 사업을 포함하며 2008년 매출 1조8798억원, 영업이익 2544억원을 기록했다.

윤활유 브랜드인 지크는 국내시장을 30% 이상 점유하고 있으며, 울산과 인도네시아 두마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윤활기유도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고급 윤활기유는 세계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는 등 수익창출과 성장전망이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SK에너지는 중질유 분해공장에서 나오는 미전환 잔사유를 원료로 고급기유를 생산하는 공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미국, 유럽 등 세계 22개국에서 특허를 취득하기도 했다.

SK에너지 관계자는 “윤활유 사업의 분사는 빠른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경영 활성화를 꾀하고, 외부 투자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면서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사업구조 측면에서의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7/03>